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September 2019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30 페이지



contents

발행인단신

- 4 UT 400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Unfinished Task 400)

이슬람 알기

- 7 우리의 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나의 골방

- 10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터키는 지금

- 12 에르도안의 아메리칸 도박
14 터키, 시리아 북부 대테러 작전
16 EU, 터키에 이스탄불에서 불가리아 국경까지의 철도 건설에 2억 7500만 유로 지원결정

New Waves in Turkey

- 17 터키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중동지역의 오늘

- 21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
26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 유산 바빌론의 고대 도시
28 인권 단체들, 터키가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아프린 시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인권 유린에 우려를 표시

차이지만

- 31 교회를 세우는 크리스천 기업인들(KBP)을 만나 봅니다

2019년 9월 27일 통권 109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룻, 이은옥, 장영미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p.30)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e-mail: info@silkwavemission.com

실크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실크웨이브 USA

운영이사장: 이 사 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부이사장 손경일 목사 (새누리 교회)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운영이사 강남수목사 (뉴저지만나교회)
강민수목사 (레이크뷰연합교회)
고훈목사 (뉴욕하안교회)
권준목사 (시애틀형제교회)
권혁천목사 (상황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진목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오레곤새로운교회)
김영하목사 (한스빌만나교회)
김태형목사 (ANC은누리교회)
김학진목사 (뉴욕장로교회)
김한오목사 (베델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연합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토스선교회)
윤명호목사 (뉴저지동산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세웅목사 (SWM선교회)
이진수목사 (주비전교회)
이형석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장경일목사 (원패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벧내리교회)

순화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척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주환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훈목사, Los Angeles, CA)
엘에이연합교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형진목사, Colorado Springs, CO)

실크웨이브 KOREA

운영이사장: 이 사 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진영 선교사 (SWM 국제/미국 대표)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망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예루살렘선교회)
이찬영 목사 (떡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터키와 특별히 터키의 모든 교회(터키, 난민)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 터키 현 정부의 여러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소서(행 4:24-31)!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온세상 모든 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44유닛의 교회개척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눈을 들어 희게 된 추수밭을 보게 하소서!
- 10월15일-11월 23일에 이루어지는 현지 사역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될 수 있게 하소서!
 - KBP(Kingdom Business Partners) 터키 비전 트립: 10월18일(금) - 26일(토)
 - 제3차 터키 교회개척리서치트립: 10월28일(월) - 11월4일(월)
 - SWM 연합운영이사회(이집트): 11월 5일(화) - 9일(토)
- 쿠르디스탄에 SWM 선교회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현지 일꾼들을 예비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소서! 특별히 예지디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울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소서!
-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시고(요엘 2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사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역대하 7:14의 말씀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 땅과 민족이 주님의 고침과 회복을 받게 하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겔37:1-10)를 속히 일으키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사62:6-70)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UT 400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Unfinished Task 400)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과 시대를 분별하는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땅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지막 때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관심하거나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와 세상 종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물어봅니다(마 24:3).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35-36).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4)**

민족(혹은 종족)이란 무엇인가?

에프네는 ‘혈연, 전통, 언어, 문화, 지역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큰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 명으로 구성된 한 민족, 아프리카 정글이나 아마존 밀림에 사는 종족 등을 민족, 종족 부족, 족속 등의 집단을 에프네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민족 혹은 종족의 수는 몇 개인가?

1974년 스위스 로잔 세계선교대회에서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랄프 윈터박사는 이 땅에 약 24,000의 민족 혹은 종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는 문화, 민족, 언어를 구분으로 약 16,300개의 민족 혹은 종족 집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은 몇 개 남았는가?





미전도종족이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 복음에 응답하지 않으며 교회가 없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지 기독교 공동체의 부재 혹은 기독교인이 인구의 2% 미만으로 스스로 전도할 능력이 없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미전도종족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미전도종족의 대부분이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정령숭배권에 속해 있는데 1974년에 약 12,000개의 미전도종족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미전도종족이 지구 북위 10도와 40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10/40 윈도우라고 이름하고 이 지역을 향한 기도운동과 더불어 전 세계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권 나라들이 열리고 여러 전쟁과 테러로 인해 이슬람권 나라들이 열리면서 이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974년 미전도종족 소개 이후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미전도종족은 몇 개 남았을까요?

2019년 8월 2일 미완성 과업(Finishing the Task)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전도종족의 숫자는 265개입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지난 40년 동안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정보를 나눈 Global Prayer Digest 단체와 함께 265개 미전도종족과 더불어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여러 민족을 선별하여 400개 미전도종족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소개하며 연합기도사역을 시작했습니다.

SWM선교회는 400개의 미전도종족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기도 동역자님께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400일동안 매일 한 개의 미전도종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종족을 향한 연합기도 운동, Unfinished Task 400 캠페인 (UT400캠페인)을 시작합니다.

4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복음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Unfinished Task)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400개 미전도종족이 있는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민족을 붙들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 어날 수 있도록 Unfinished Task 400 캠페인에 참여해주시요.

그날까지 땅끝까지 400개 미전도종족을 향한 우리의 연합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슬람 알 기

우리의 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글: 김선희 사역자 (이스탄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립니다.

터키는 이번 주(8/11-14)부터 쿠르반 바이람 (속제물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모두들 각자의 고향에서 일주일 간의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800만 명이 넘는 세계의 경제 도시인 이스탄불이 매우 한산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쿠티 교회 옆의 건물 주차장에서 쿠르반 바이람을 맞이하여 거대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속제물로 드리는 예식을 모스크의 이맘과 함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의식은 짐승의 피를 그들이 사는 곳에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날의 거대한 행사는 주일 날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쿠르반 바이람 예식을 위하여 지불된 제물, 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 모습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의 울부짖음은 보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모스크에서 나온 종교 지도자 이맘과 주위 사람들은 기도문을 외우고 손뼉을 치는 예식을 치르고 난 뒤, 네 명의 청년들이 먼저 소의 머리를 자르면서 가죽을 벗겨 나갔습니다. 살기 위한 소의 몸 부림과 목에서 나온 피들은 그곳 주차장을 온통 붉은 피로 적셨으며, 역겨운 피비린내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주차장 앞에서 예배를 드린 저희들 역시,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의 속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역시 인터넷 전도에 썼던 글도 희생 제물을 통한 죄의 씻김, 속죄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터키어의 중요한 단어 중에 Kefaret/케파레트 라는 것을 쿠르반 바이람때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그 죄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특별히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덮고 깨끗하게 지우는 것 또는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요? 속죄함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주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었을 때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창 3:21)



가인과 아벨은 땅에 거하면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길 원했습니다. 가인은 그 땅의 곡식 중에서 하나를 제물로 바쳤으며, 아벨은 목축하는 짐승들 가운데 온전하고 흠이 없이 태어난 첫번째 것을 희생 제물로 가져왔습니다(창 4 : 1-5). 주님은 아벨의 희생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악으로 관행된 것을 보시고 주님은 물로 심판하셨고 홍수가 그치고 땅이 완전히 건조되어서 방주에서 지상으로 나왔을 때, 노아는 처음으로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속죄물로 온전하고 깨끗한 짐승들을 골라서 희생 제물로 드렸으며, 그 속죄물의 향기를 주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창 8 : 1-21).

구약에서 속죄물로 희생된 짐승은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물에 희생된 짐승들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레 4:35, 5:10). 구약에서 드러진 속죄물 예식은 짐승의 피흘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히브리어 9장에서 피흘림 없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며, 피흘림이 없는즉 죄 사함이 없다. (히 9:22)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죄물을 요구하셨을까요?

구약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와 사건에 따라 전개됩니다. 그들은 시대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의 원인은 선택받은 민족들이 창조주를 버리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을 울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죄의 어떠한 형태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예식을 갖추고 성전의 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오는 희생 제물을 속죄제에 드리는 것에 엄격한 구분을 두었습니다. 첫번째는 짐승의 희생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두번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 죄로 인하여 짐승의 피 흘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희생 제물의 죽음만이 자신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 곧 짐승의 죽음이 자신의 죄가 죽는다는 것을 동일 의미했습니다. 세번째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흘림으로 한 사람의 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범죄 때문에 온전하고 깨끗한 짐승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제에 사용된 짐승의 피흘림과 죽음은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은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짐승의 피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할까요? 짐승의 피흘림을 통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



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망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속죄제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우리의 죄 값을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벧전 1:19)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본체십니다. 주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결코 범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가 지은 사망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물로 드렸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3:23-25)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죄를 사하신 구속자 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 복음 3:16)

우리에게 영생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은 단 한 번의 속죄제로 이미 완성되었으며,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으며, 우리 죄 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물로 죄사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513660405323592&id=2291450147544620&__tn

안나의 골방 9월의 기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깊고 깊은 불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늘 우리가 원하는 방법인
따스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남풍의 사랑,
지팡이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주시길 바라지만
때로는 혹독하고 아프고 춥고 견디기 힘든 북풍의 사랑,
막대기의 사랑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은혜가 넘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실 때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 삶이 뒤틀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오해와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면
슬그머니 남의 탓이라며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창조자되시며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닌, 너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빚으셔서
당신의 형상 닮도록 다듬어 가시는 이 여정에
때론 나는 의롭고, 나는 옳고, 나는 너와 같지 않다는
교만이 큰소리를 칠 때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너가 나보다 낫고, 너가 잘되고, 너가 축복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면
세상이 줄 수도 알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삶 전체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풍의 사랑,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가기 쉽지만,
북풍의 사랑, 막대기로 우리를 이끄시며
모나서 남을 아프게 하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숨어 있는 죄성들을 다루시면서
당신을 닮도록 이끌어가실 때는
나에게 왜이러시냐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
당신은 살아계시냐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뇌하며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비로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편 73:16,17- 우리말 성경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깨달아감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여정이라면
복풍과 막대기의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합당하십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반응이 아닌
성령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놀라운 하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 목소리가 크고, 내 감정이 때론 너무 중요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자주자주 실패하여 자신없어 포기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입고 닮아가는 삶은
저야 하고 쇠하여야 하고, 침묵해야 함이 힘들고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도우실 것이며,
우리는 실패하고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헌신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미 이기신 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추구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얻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에르도안의 아메리칸 도박

글: 부락 베크달 (게이트스톤)

번역: 한국 번역팀



지난주, 터키는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첫 부품을 인도받았다. S-400은 최대 400km(250마일) 범위에서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미국제 F-35 전투기를 포함한 나토의 항공 자산을 격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사진 :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배터리. (이미지 출처 : Vitaly Kuzmin/Wikimedia Commons)

2017년 말 터키가 장거리 공군과 대미사일 구축에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공식 선택한 이후,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구매가 '완전한 거래'라며 "어떤 방공 시스템을 터키 땅에 배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터키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F-35 번개 II 5세대 전투기를 제작 중인 다국적 합동타격기(Joint Strike Fighter) 프로그램에서 터키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또한 제재 조치를 통해 미국 대항 반대 범안에 더 많은 제재 조치로 터키를 위협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CAATSA 제재로 인해 터키 기업들이 손실된 계약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터키는 최소 100대의 F-35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미 14억 달러를 지불했다.

에르도안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터키가 러시아와 S-400의 공동 생산과 보다 진보된 S-500 시스템의 공동 생산을 고려하고 있으며, S-400은 터키의 주권적 결정이었고, 터키도 F-35 대신 러시아제 Su-57 전투기의 인수 또는 공동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S-400은 최대 400km(250마일) 범위에서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다. 그것은 제작 중인 F-35를 포함한 나토의 항공 자산을 격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S-400 시스템의 첫 부품이 7월 13일에 앙카라에 도착했다.





존 사르바네스 미국 하원의원(민주당, 메릴랜드)은 12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터키의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인수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과 NATO 동맹국들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안겨준다. 터키는 정교한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입하여 나토 하드웨어에 통합함으로써 이 지역의 나토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분열과 불신을 심어 주기 위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노력에 승리를 안겨 주고 있다. 에드로안 대통령 통치 아래에서 터키는 위험할 정도로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변모해 왔다. 터키가 이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S-400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고 러시아에 반환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터키 리라는 하락했고 올해들어 터키 경제는 다시 위축되었다. 미국이 약속한 방식으로 보복할 경우 양카라와 워싱턴의 관계는 걸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JSF 프로그램에 터키의 회원 자격 박탈, 터키 조종사들의 훈련 중단, 특히 터키가 자국 남동부 및 북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무장단체에 대해 사용하는 중요한 군수품들을 공급하지 못하며, S-400 프로그램에 관련된 터키 고위 관리들과 방위 회사들을 제재한다. 새로운 경제 제재의 물결이 터키의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상태를 자유낙하로 밀어 넣을 지도 모른다. 여기에 약간의 정치적 곡예를 사용할 수도 있다.

워싱턴에는 동맹국을 위협하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미국과 터키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몇 가지 다른 거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완화하라. 터키의 경기 침체가 터키를 경제적으로 압박해 미국 목사의 석방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 앤드류 브론슨 목사의 사례를 상기해 보면, 에르도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CAATSA 제재다. 최근 공식 통계에 따르면 터키의 실업률은 13%로 420만 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경제가 불황이고 리라 환율이 불안정하다.
 그 나라에 영구적인 폭발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두 가지 계획을 모두 실용적으로 혼합해 만들어라.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상호운용성을 무시하는 최초의 나토 동맹국이 됨으로써 나토 회원국들은 새로운 '친숙한 적군'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터키의 유력 언론인 중 한 명인 부락 베크달은 최근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개스톤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29년 만에 가장 유명한 신문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중동 포럼의 동료다.

〈출처: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4552/erdogan-american-gamble>〉





터키, 시리아 북부 대테러 작전

글: 양카라 아나톨루
(휴리엣 데일리 뉴스)
번역: 한국 번역팀

터키의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8월 6일, 시리아 북부 대테러 작전이 곧 “다른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제 11회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과 올리브 가지 작전으로 시작한 시리아 북부의 대테러 작전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터키는 이슬람국가 격퇴전에 참여해 미국과 동맹으로서 입지를 다진 쿠르드 민병대 (YPG)를 자국 내 분리주의 테러조직으로 보며 YPG 격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는 모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권리가 있고 필요하다면 시리아 내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화와 함께 부드럽게 나가기도 하지만 강압적인 외교 수단이나 현실 정치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리아 내 미군이 지원하는 YPG 를 가리키며 동맹국의 중화기 지원을 받는 터키 남부 국경의 이 “조직”을 척결하기 전까지 자국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터키는 북시리아에 폭 32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YPG와 정치집단인 민주통일단 (PYD)을 이 지역에서 척결할 것을 요구했으며 YPG를 41년 간 터키 정부와 전쟁 중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시리아 분파로 보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PKK를 이라크 지역에서 격퇴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미국에게 “페트홀라 굴렌 테러조직의 본국 소환과 PKK/YPG 테러 단체 군사 지원 중단에 대해 명확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S-400미사일 도입은 ‘전략’이 아닌 ‘상업’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러시아 S-400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은 “전략적”이 아닌 “상업적” 움직임이었다고 말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S-300 시스템을 구입했을 때 미국과 유럽연합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토대로 그들의 편향된 반응을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행정부는 터키 동맹국들의 태도 때문에 러시아제 방어 시스템을 구입했으며 NATO 동맹국이자 협력 국가인 미국이 동맹국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S-400이 F-35나 NATO를 위협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누구도 서로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많은 NATO 동맹국들이 러시아로부터 구매했으며 이것을 위기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터키는 안보를 위해 사업상의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결정은 동맹국들의 단호한 입장 때문이었으며 G20정상회담에서 터키는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사실의 확증이었다고 덧붙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의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두고 두 NATO 동맹국 사이의 불화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터키는 지난 달 처음으로 S-400을 인도 받았으며 두 번째 도입은 내년 앙카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F-35의 터키 판매를 금지하고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배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터키, 카슈미르 긴장 완화를 강구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 분쟁의 “우려되는”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8월 6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유익한” 대화를 나눴고, 지역 내 커져가는 긴장 완화를 기대하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국무총리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 전했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로 병합됐던 자국 유일의 무슬림 다수 지역에 허용된 자치권 등 헌법상 특별지위를 8월 5일 인도 정부가 박탈했다. 이 조항은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이 자치 법령을 시행하게 했으며 해당 지역의 외국인 이주나 부동산 취득을 막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자 히말라야 지대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양국 모두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는 1948년, 1965년과 1971년 세 번의 전쟁을 했고 그 중 두 번은 카슈미르에 대한 전쟁이었다.

잠무에 있는 일부 카슈미르 단체들과 카슈미르 사람들은 그들의 독립 혹은 이웃 파키스탄과의 통합을 위해 인도의 지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몇몇 인권 단체들은 이 분쟁으로 인해 1989년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hurriyetdailynews.com/turkeys-op-in-n-syria-to-move-different-phase-soon-erdogan-145566>〉





EU, 터키 이stanbul에서 불가리아 국경까지의 철도 건설에 2억 7500만 유로 지원결정

글: TM

번역: 한국 번역팀



유럽연합(EU)은 터키에 2억7500만 유로(약 3억1100만 달러)를 지원, 이스탄불에서 불가리아 국경까지 155km의 철도 노선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11억 유로의 할칼리-카피쿨 프로젝트는 EU가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네 번째 주요 철도인데,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터키 철도에 약 8억 4천만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번의 합의는 할칼리-카피쿨 노선의 거의 절반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터키 국영철도(TCDD)가 자금을 조달한다.

터키 주재 EU 대표단의 크리스찬 버거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아시아와 유럽 간의 화물 운송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흐메트 카히트 투란 터키 교통 인프라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터키가 아시아 유럽 블록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란 총리는 "EU와의 통합 과정을 모든 면에서 더욱 가시화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터키는 2004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입 협상이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은 여전히 최우선 전략 목표 중 하나라고 말한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의원들은 터키의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인권, 사법, 경제 정책에 대한 심각한 후퇴로 앙카라의 가입 시도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turkishminute.com/2019/06/11/eu-grants-turkey-e275-million-to-build-railway-from-istanbul-to-bulgarian-border/>>





터키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글: 이세웅 SWM 실행총무

초대 교회의 요람인 아나톨리아 반도에 지금은 전체 터키 인구 약 8400만 명 가운데 0.012 % 정도인 약 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주님께 간절히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다.

“터키 81개 주마다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터키 모든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 무스타파 케말 파샤 초대 대통령에 의해 세워졌다. 1992년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전범으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기소되면서 해체되었다. 당시 장군이었던 무스타파 케말 파샤는 오스만 제국의 멸망 이유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것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무스타파 케말 파샤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 기초 위에 터키 공화국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 터키 공화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97%가 순니파 무슬림인 터키는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그렇기에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종교적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961년 개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개인은 양심과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종류의 예배나 종교행사 및 의식은 도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터키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터키의 인구율을 볼 때 젊은 나라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한 해에만 약 85만 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8월 12일 현재로 59만 명이 증가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만 약 27만 명의 이민자/난민들이 터키 시민이 되었다.

SWM 선교회의 터키 교회 개척

2005년부터 시작된 SWM 선교회의 터키를 위한 연합기도운동은 2007년부터 한인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매해 2012년까지 진행되었고 2016년 터키 교회의 요청에 의해 2016 갑바





도기아 연합중보기도회(5/12 - 22, 2016)로 모여 터키와 중동 그리고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약 한달 후에 250명 이상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한 터키의 실패한 쿠데타가 7월 15일에 일어났고 그후 터키의 긴급조치 상황이 일어나며 약 2년의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긴장된 시간을 보낸 후 2018년 7월 19일 이 긴급조치가 해제되었다. 이 기간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했고 175개 이상의 언론사를 폐쇄하였고 5만 명이상이 구금 당했으며 12만 5천 명 이상이 직업을 잃었다. 또한 2016년 10월 7일 미국 출신의 앤드류 브론슨 터키 교회 목사를 체포하고 2년 이상 구금하고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을 만들어 내었다. 미국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터키는 반미 친 러시아 또는 친 중국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듯 국제적인 몸짓을 하고 있다. 앤드류 목사는 전세계의 성도들의 기도와 미국 정치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미국 정부의 다각도에 걸친 전략과 협상을 통해 2018년 10월 12일 터키 감옥에서 풀려났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2016년 갑바도기아 연합중보기도회와 연이어 일어난 터키의 실패한 쿠데타를 보면서 2007년 말라티아 순교사건을 떠오르게 된다.

2007년 1차 터키 연합기도회가 2007년 2월 26일 - 3월 2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진행되었다. 약 280명의 한인사역자들 가족이 함께 모여 터키의 영적돌파와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약 2달 후에 말라티아에서 독일인 틸만 선교사와 터키 네자티 목사 그리고 터키 청년 우르가 5명의 극우청년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것은 터키 교회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왔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터키 교인들은 TV에 보도될 것임을 알면서도 거리로 뛰쳐 나와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리는 플랭카드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고 이 사건을 통해 터키 교회는 성도들과 지역교회에 퍼져 있는 두려움을 떨쳐 내기 시작했다.

이 일 이후에 터키 교회는 그동안 예수를 따르는 것을 숨겨왔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여러 가지 행사 -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가두행진, 부활절 가족 초청 음악회 - 등을 통해 두려움없이 예수의 제자됨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터키와 중동 그리고 이슬람권의 영적 돌파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전 세계의 SWM 선교회 기도자들은 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해왔다. 기도와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터키교회, 현장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교회개혁자들을 통해 터키 81개 주에 복음이 전파되며 가정교회와 건물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





터키로 피난 온 난민들은 그 숫자가 45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 공식적으로 터키의 난민으로 등록된 숫자는 약 3백만 명이다. 그 나머지 숫자는 난민등록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난민등록을 하고 기다리는 난민들이다.

SWM 선교회는 2018년 6월에 터키 교회의 요청에 따라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로 피난 온 난민들 가운데 자발적인 가정교회가 형성되고 이 모임을 통해 많은 구도자들이 생기고 있었다. 터키에 온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왔고 이들이 자신의 국가에 있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했다. 가장 난민을 많이 발생시킨 세 나라는 시리아(550만 명), 아프가니스탄(250만 명) 그리고 남 수단(백 4십만 명)이다. 2018년 12월 현재 등록된 숫자로 볼 때,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드린 네 나라는 터키(3백만 명), 파키스탄(140만 명), 레바논(98만 명), 이란(94만 명)이다. 약 만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터키 교회와 약 천 명의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단체들, 파송/후원교회들을 통해 터키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

SWM 선교회가 2016년부터 준비하여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터키 교회개척운동은 2018년 12월 현재로 27개 유닛의 교회개척자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터키,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거나 개척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8월 현재 44개의 교회개척자들이 세워져 일하고 있고 5유닛이 교회개척자 후보로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 외부의 재정에 의존하는 교회개척이 아니라 교회개척과 더불어 재정 독립과 더 나아가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일하고 있다. 미전도종족의 정의를 전체 인구 1% 미만의 성도가 있는 종족으로 정의할 때 터키는 분명히 미전도종족이지만, 터키 교회와 터키 현장과 터키 외부의 사역자/단체들은 재생산하는 교회가 터키 교회를 통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조그마한 열매도 보이고 있다.

17년 전에 터키 흑해 지역에서 시작된 삼순개신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흑해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왔다. 회계사였던 오르한 목사가 사역자로 부임한 이후 아들 유괴 시도와 살인 위협 속에서도 곳곳이 자리를 지키며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선포해 왔지만 동역자도 열매도 많이 맺히지 않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했다. 교회에 돌을 던지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교회에 앉아





교회를 지키던 오르한 목사와 삼순교회 신도들은 주변의 다섯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다. 오르두, 토캣, 아마시아, 초롬 그리고 시놉이다.

몇 년 전부터 동역자 한 가정이 삼순에 정착하면서 오르한 목사는 힘을 얻었고 이전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터키 청년들이 복음 전도자로 키워지고 미래의 교회개척자로 준비되고 있고, 인근 도시 오르두에 2017년에 첫 번째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 후 두 명의 청년지도자 오르두와 탄셀이 교회개척자로 헌신하며 삼순 주변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구도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 삼순교회를 통해 개척되고 있는 이란인 공동체(약 40 - 60명)에 사신 사역자를 세웠고 그는 3시간 떨어진 시놉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시놉에서 여러 성도가 세례를 받았고 건물을 얻어 교회를 등록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삼순교회에는 이라크인 공동체(50 ~ 70명)가 세워지고 있고 아르칸 사역자가 섬기고 있는데 흑해 지역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이라크 공동체에 방문과 인터넷 그리고 전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라크 공동체는 갈대아 정교회와 가톨릭 배경의 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난민이 되면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무슬림 배경의 이라크 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초롬과 토캣 그리고 아마시아에는 많은 이라크인들(약 2000가정 이상)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물론 그들 대부분은 난민들이다.

초롬에는 삼순교회의 아르칸 사역자를 통해 작년 9월에 이미 교회가 개척되었고 곧 건물을 얻어 교회로 등록할 예정이다. 난민들 만으로 교회 등록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삼순교회가 등록을 하고 아르칸 사역자가 초롬을 방문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오르한 목사의 지도력 아래서 재생산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아마시아에도 토캣에도 그리고 아피온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포도주를 부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부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새일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

글: 타우픽 하미드(Tawfik Hamid)

번역: 한국 번역팀



아랍국가들에 의한 1947년 유엔 분할 계획의 거부와, 평화 수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는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국가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첫번째 명백한 증거였다.

사진: 1948년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에 있던 아랍군 소대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우리는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려는 재러드 쿠슈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이 사람들이 평화 제안 거부를 하는 등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지 못한 진짜 원인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들, 중동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는 모든 노력들은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이슬람교도와 아랍인으로서 두가지 배경을 가진 내부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1. 아랍-이스라엘 분쟁은 국경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다

1947년, 유엔 평화유지계획(United Nations Partition Plan, 결의안 181호)은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에게 성지 대부분을 통제하게 했다. 이 평화유지계획을 아랍국가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선전포고를 했다. 이것은 아랍인들은 결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국가를 제공해주려고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





애버리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파괴적 의도는 이스라엘 국가 적결을 뻔뻔하게 요구하는 하마스의 현장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의도는 또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이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탄원과도 일치한다. 아랍 세계의 관련 소셜 미디어 논평에 대한 평가는 아랍 인구의 -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파괴와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살해를 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열망을 보여준다.

2. 문제의 원인은 땅이 아니다

오스만 제국의 붕괴 이후, 몇몇 아랍 국가들이 만들어졌다. 아랍 세계는 이 사실을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였다. 이 국가들은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가를 거부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실제로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랍 이슬람교도들에게 (알자지라 TV의 요점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 전체 인구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이스라엘과 계속 싸울 것인지 물었다. 대답은 만장일치 "아니오"이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항상 "그렇다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이스라엘 국가의 유대민족성과 관련이 있다"이다.

3. 망상적 사고방식

망상은 현실과 모순되는 고정된 믿음으로 정의된다. 아랍 세계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대한 어떠한 평화적인 해결책도 방해한다. 예를 들어, 아랍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국가의 경제적 붕괴의 원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1952년 혁명 이전에 유대인 공동체가 이집트의 실질적인 구성원이었을 때, 이집트 경제는 나세르 대통령이 유대인들을 국가에서 추방한 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었다. 유대인이 나라들의 경제적 붕괴의 원인이었다면, 이집트 경제가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난 후에 크게 개선된 것을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망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논리를 보지 않는다.

4.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아랍인들의 마음

아랍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모든 아랍인들을 추방했다고 거짓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시민으로 살고 있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아랍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 이라크, 알제리와 같은 나라에서 굴욕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이 아랍인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랍인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유대인 사회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평화적인 해결의 또 다른 장애물로 자리잡고 있다.





5. 음모이론

아랍과 이슬람 매체의 분석과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통해 아랍의 거리는 아랍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이스라엘 음모' 즉, 적어도 "아랍인의 잘못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상어가 이집트의 홍해 연안에서 여러 명의 관광객을 공격했을 때, 관리들을 포함한 많은 아랍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획했다고 비난했다. 그 직후,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위한 스파이 행위에 대한 "혐의"에 대해 독수리를 체포했다.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자인 칼레드 아부 토메는 "쥐가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구시가지에서 아랍인들을 몰아내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비난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 쥐들이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월감(혹은 불충분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자기 기만과 아랍 세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비난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러한 자괴감은 아랍 세계에서 병적인, 자기 파괴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6. 심리 투영

심리학적인 투영이란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금지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정신적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 즉 탐욕, 편협함 또는 성적 충동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한 욕망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비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 비 이슬람 소수자들에 대한 분명한 차별을 함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교회 건설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인함) 아랍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차별에 대해 말할 때 이스라엘만을 손가락질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차별을 느낀 곳은 무슬림에 의해 당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즉 무슬림들이 알-아크사 사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차별을 경험했었다 (슬프게도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의 무슬림 배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당국의 어떠한 제재도 없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벽과 성스러운 세펠레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다.

7. 전례 없는 반유대주의 수준

이슬람교도들이 유대인 여성들을 모욕하기 위해 강간하는 것을 정당화했을 때 이것을 옳다고 주장한 소아드 사레흐의 진술은 무슬림 세계의 반유대주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아드 사레흐는 세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이슬람 대학인 알-아자르 대학의 유명한 학자이다. 그녀는 사실 아랍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온건파"로 여겨지고 있다! 단 한 명의 이슬람 학자도 그녀의 사악한 견해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아자르 대학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한 야만적인 견해는 소아드 사레흐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논평에 대한 신중한 평가는 이러한 믿음이 아랍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준다.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 이러한 뉘우치지 않는 반유대주의를 먼저 다루지 않고서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대한 어떤 평화적인 해결책도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8. 실용주의의 부족

아랍 - 이스라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아랍 세계에서 실용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 (시나이 반도의 귀환과 수에즈 운하의 재개통, 무역과 관광에 대한 혜택 등)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집트인과 아랍의 다른 나라들도 여전히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의 평화적인 정책을 거절하고 반대한다. 이집트의 수만 명의 이집트인들이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하고 불태웠을 때, 유대인과의 평화에 대한 아랍인의 저항은 캠프 데이비드 협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타났다.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비 실질적인 접근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항상 장애가 된다.

9. 이데올로기 요인

종말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 모두를 죽여야 한다는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이념적 믿음은 중동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주요한 장애물이다. 그러한 신념은 주로 꾸란 자체가 아니라 선지자 무함메드의 하디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이슬람에 대한 개혁적 이해 부족

이슬람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유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을 과거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대인에게 비판적인 구절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과거에 국한된 것으로 본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나의 호의를 기억하고 내가 인류보다 너를 더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라." (꾸란 2: 122)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유대인을 "돼지·원숭이"라고





부르기 위해 사용되어 온 구절은 실제로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토라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 사이의 특정 그룹으로만 국한되었다. 정교한 신학적 분석에 들어가지 않고, 요점은 그러한 구절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 첫째 구절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두번째 구절이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늘날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11. 교육

유대인에 대한 편견은 아랍인들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견해가 학교 첫날에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아랍과 이슬람 세계가 이러한 편견을 강화한다면 아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우디 교과서들은 최근 무슬림 형제단의 모든 영향력을 금지하면서, 반유대인, 반기독교인, 반수피적인 편견에 대해서는 아직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6-2017년 사우디 교과서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시온주의가 세계 지배와 세계 유대인 정부"를 열망한다고 근거없이 주장한다." 지금 그것은 투영이다. 세계 지배는 살라피 이슬람이 열망하는 것이다. 유대교는 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유럽 연합은 현재 팔레스타인 교과서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정부기구인 IMPACT-^{se}가 5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19학년도 새 팔레스타인 학교[자료]는.. '이전에 출판된 것보다 더 급진적이다' 비정부기구(NGO)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모든 등급과 주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폭력, 순교, 성전(지하드)를 체계적으로 삽입하는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반면에, 아무도 평화를 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치인들이 수십억 달러의 기부를 받기 위해 갈등을 이용하고 있는 슬픈 현실들을 모두 감안한다면, 우리는 왜 이 갈등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인사이드 지하드의 저자인 타우픽 하미드는 급진 이슬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게이트 연구소의 뛰어난 선임 동료이다.

<출처: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4634/arab-israeli-conflict-reasons>>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 유산 바빌론의 고대 도시

글: 린디 로워리 (오픈도어스)
번역: 한국 번역팀



이 고대 도시는 사담 후세인과 미군에 의해 입은 일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거쳤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바빌론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선포되었다. 이라크는 1983년부터 4,000년된 이 도시를 유엔의 권위있는 명단에 올리기 위해 로비를 해왔다. 이 도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으로 유명했다.

이 지역은 사담 후세인을 위한 궁전 건설과 이후 미군 기지 사용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유엔 세계유산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만나 인류 전체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국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이나 명소에 대한 영예를 수여할 최신 유적지를 결정했다. 이라크 대표단은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 문명화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번 지정을 환영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과 이 도시의 연관성은 세계적인 규모로 예술, 대중, 종교 문화에 영감을 주었다. 또한 이 지역이 “극히 취약한 상태”이며 긴급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로 지정된 세계 유산은 무엇?

- 바빌론, 이라크
- 부르키나 파소의 고대 제련소 유적
- 파라티와 일하 그란데, 브라질
- 바트나예쿨 국립공원, 아이슬란드





- 프랑스령 오스트레일리아 육지와 바다, 프랑스
- 오히드 지역의 자연 및 문화유산 - 1979년부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호수의 북 마케도니아 쪽에서 확장된 것이다.

리사 애커먼 뉴욕 소재 세계 기념물 기금 (World Monuments Fund)의 임시 CEO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선단체는 바빌론의 투구를 위해 12년 동안 이라크 정부와 함께 일해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라크가 이 도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로비를 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저작권 로이터,
이미지 캡션 이스타르 게이트의 복제품

중차대한 침범

1980년대 초, 전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원래의 유적들 위에 복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대 도시의 많은 부분을 파괴했다. 걸프전 이후, 그는 또한 주요 지역을 내려다보며 폐허의 다른 부분에 자신을 위한 사치스러운 현대 궁전을 지었다. 그 후, 2005년, 대영박물관은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이 이 고대 도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박물관 중동부의 키퍼였던 존 커티스는 보고서를 통해 모래주머니에 귀중한 고고학적 조각들이 가득 찼고, 2600년 된 돌들이 탱크에 의해 부서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연료 누출의 증거를 발견했고, 고고학적 매장지를 가로질러 파낸 12개의 참호들을 발견했다. 그는 당시 "스톤헨지 주변에 군사 기지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4년 후, 유네스코는 "바빌론을 군사 기지로 사용한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적 유적지에 중차대한 침범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48888893>〉





인권 단체들, 터키가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아프린 시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인권 유린에 우려를 표시

글: TM

번역: 한국 번역팀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이 2018년 3월 18일 쿠르드 인민 수호 부대 (YPG)로부터 시리아 북서부 도시 아프린의 통제권을 탈환 한 후 상점을 약탈했다. 양키라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 인민 수호 부대에 대항하여 2개월간 작전을 펼친 데 대한 대승으로 터키군이 아프린으로 밀고 들어가 시 전역을 장악했다. / AFP 사진 / BULENT KILIC

인권단체들은 시리아 북서부 도시 아프린의 반군 세력에 의해 증가하는 민간인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주, 반군에 의해 납치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10세 소년이 납치범들에게 1만 달러의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후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해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같은 사건은 2018년 3월 쿠르드 인민 수호 부대를 축출한 지 2개월여 만에 터키군과 시리아 반군이 아프린을 장악한 이후 만연해 왔다고 인권단체들은 전했다.

필립 나시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중동 북아프리카 지국장은 "아프린에서 터키인과 반군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몸값과 무기한 감금을 위해 납치하는 행위,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프린에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행동은 모든 주민들에게 매우 현실적이다"고 덧붙였다.

터키군 외에도, 적어도 12개의 반군 단체들이 아프린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 해방전선을 비롯한 여러 이슬람 단체들이 쿠르드족 다수가 있는 도시에서 현지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인권 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터키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시리아의 민간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국제앰네스티의 나시프씨는 "터키는 점령군이기 때문에 아프린 내에서 활동하는 대리군의 행동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앙카라는 쿠르드족 YPG를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 쿠르드족 YPG는 터키의 쿠르드족 권리 증대를 위해 터키군과 3년간 전쟁을 벌여왔다. PKK는 터키, 미국, 유럽연합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간주된다.

2018년 3월 쿠르드족 YPG 전사들을 아프린에서 몰아낸 이후 터키군은 현지 상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터키 대통령 대변인 이브라힘 칼린은 "터키는 아프린에서 시리아인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의 인권을 감시하는 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2018년 3월 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 아프린 지역에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미 압둘라만 시리아 천문대 소장은 VOA에 "아프린에서 수백 건의 인구 변동과 강제 이동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린에서 터키의 지휘 하에 활동하는 일부 단체들은 아프린을 순니파 이슬람 지역으로 만들고 분쟁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재결집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이것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패턴으로,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라고 나시프는 말했다.

〈출처: <https://www.turkishminute.com/2019/06/03/rights-groups-express-concern-over-abuses-against-civilians-in-turkish-held-syrian-city-of-afirin-report/>〉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 기도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PD(Global Prayer Digest)와 조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미전도 종족, 400종족을 선정하여 400일간 매일 한 종족을 소개하면서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SWM선교회에서는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파트너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 한인디아스포라 기도네트워크를 통해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알리며 연합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에 참여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땅끝까지, 400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우리의 연합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은 다음과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기간 :
2019년 10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받아보시고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십시오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교회나 개인 기도자는 SWM 선교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400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홈페이지 (<http://globalupm.net/gpd/>)을 방문하셔서,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십시오.



관련 문의: 이은옥 간사(714.999.8639)

관련문의 (한국): 임동혁 간사 (010-8632-0278)



교회를 세우는 크리스천 기업인들(KBP)을 만나 봅니다

KBP는 Kingdom Business Partners의 약자로 이슬람권의 교회개척 등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돕기 위해 세워지고 있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재단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들을 통해 힘있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카고에 계신 이재근 장로님과 코네티컷에 계신 손강호 집사님은 서면 인터뷰로 참여하셨습니다)



이세웅 편집인



허용진 장로



김응진 집사



손강호 집사



이재근 장로

사 화: 이세웅 편집인(SWM 선교회 실행총무)

참석자: 허용진 장로(KBP 이사장, 베델교회)

이재근 장로(KBP 부이사장, 레익뷰언약교회)

김응진 집사(KBP 이사: 총무, 베델교회)

손강호 집사(KBP 이사: 서기,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정 리: 장영미 간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KBP로 섬기시는 허용진 장로, 이재근 장로, 김응진 집사와 손강호 집사님을 통해 귀한 모임에 대해 저희가 배우고 알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KBP에 대해 듣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3대째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크리스천이 된 것은 아니예요. 미국에는 15살 때 왔는데요 이곳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에 다니는 한 누나의 소개로 CCC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 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과 군대를 모두 마치고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왔어요. 그때가 27살이었는데 이곳 LA지역에 와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IMF로 인해 한국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마침 LA에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남자기기에 세일즈 매니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일즈를 위해 많은 바이어들을 만났습니다. 바이어 중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저의 아내였지요.

그 당시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저와 제 아내는 신앙이 없었습



니다. 저의 종교는 불교였고 아내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저의 집안은 제사가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1년에 약 15번 정도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계속 있으면 크리스천이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 큰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때 아내가 영적으로 불안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저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모 교회를 가자고 제안을 해주어 갔습니다. 그때 교회에 가서 찬양을 듣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교회에 간 기억이 있었지만 왜 갑자기 눈물이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나눠 주셨어요. 암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 간증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 등록하여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을 4년 동안 참여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육반에서 공부하면서 성

경을 읽기 시작했고 처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사건등... 그런 이야기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 3:16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제 생일이 3월 16일이거든요. 이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베델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로 쓰기 원하심을 여러 모양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를 통해 제 마음에 선교를 향한 마음을 더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업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가게 되면서 고모가 다니시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고모가 가는 교회에 스스로 따라 나



셨는데 몇 달 만에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섬기는 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많은 수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특별히 중 고등부 아이들에 대한 강한 애정과 사랑이 커지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생하게 눈앞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학을 통해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섬김의 생활은 신실한 믿음의 자매와 결혼하며 변화 없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며 기쁘게 섬기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교회 내부에 분열과 마음들의 갈라짐을 보며 많은 의문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새롭게 찾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통한 사역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역에 저 자신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다가왔을 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을 향한 확신을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회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며 주님의 사역을 회사를 통해서만 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오다 82년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와서 이곳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 사찰 집사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 전공이 화학 분야이기에 과학적인 접근과 사고를 하게 되면서 그 잣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 자신의 믿음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빅베어에서 하는 은혜교회의 프레스 디아스 영성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1번째 생일날 저녁, 성찬식 포도주 향아리 위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완전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보니 온 세상이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 어느것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찬양이 내 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제 KBP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모임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2019년 7월 12일, 13일 달라스에서 KBP모임을 가지셨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KBP는 평신도들이 이슬람권을 향한 교회 개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된 모임입니다. 최근 이슬람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즉 예를 들면 시리아의 난민의 소식 그리고 아랍의 봄의 혁명 등을 통해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슬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KBP는 터키에서 이란, 아프간 난민들과 터키인들에게 현지인 지도자를 발굴하여 말씀과 영성훈련을 통하여 현지인들로 훈련시켜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게 하여 그 땅 위에 사도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이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도전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첫 모임을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 즉 달라스에서 KBP 모임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달라스까지 오셔서 이 모임에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슬람권의 교회 개척을 위해 진정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이 모임은 헌신된 분들을 중심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허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SWM 선교회 터키 아웃리치를 갔다 오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2007년 여름에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등이 있었기에 저는 이슬람권 지역에 대해 들으면 무섭고 두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7,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동하고 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터키 지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영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비전을 공유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제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비즈니스를 축복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함을 도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미지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KBP가 시작될 때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실질적인 모델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비전과 목적을 가진 분들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모임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허장로님께서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모임을 갖자고 하셨을 때 '왜?' 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KBP의 첫 모임을 달라스에서 가졌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모임을 한다는 것은 헌신된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임을 가졌기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과 비즈니스를 모두 내려놓고 집중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달라스 모임에서의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동부의 끝에 한인들이 많지 않은 작은 도시에

삶의 터전이 있는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할 기회와 의지가 없다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부르신다는 마음을 받았던 달라스의 모임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외로움과 부담감을 느꼈던 저에게는 KBP 이사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사님들로부터 협력자요 선배요 모두가 함께 한다는 느낌으로 또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모임이 아쉬웠지만 앞으로 이사회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며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임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KBP 첫 이사회 임원단이 구성되었는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SWM 선교회의 교회개혁 운동을 통해 KBP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 하시는지요?



현재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영리 재단을 등록하여 재정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비영리 재단이 등록되고 또 터키에도 비영리 재단(바크프)이 설립하여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내년까지 이 등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SWM 선교회가 계속 교회 개혁을 위해 현지에 있는 분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재정적인 것을 저희 KBP에서 잘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또 현지 사역자들의 필요 예를 들면 모임장소, 차량 등의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KBP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사회가 구성되고 현지 300교회 설립을 목표로 한 교회에 \$500 씩 매월 돕는 SWM 선교회의 주된 사업에 재정적인 후원 사업을 완성시켜 그 땅 위에 왕의 대로를 수축하여 이 세상 끝 마지막이 되는 이스마엘 자손들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돕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KBP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나눠주세요.



문이 닫혀있던 이슬람권에 문이 열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KBP는 평신도 위주로 조직되었기에, 비즈니스 등을 이용해 터키 등의 무슬림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자본, 즉 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시대라고 봅니다. 자본을 통한 발전과 이익 창출을 당연시하며 권장하고 사회 정의와 모든 관계의 기준에도 돈이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복종)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최대의 이익을 만드는 것이기에 기업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자본 이익이라는 경계의 벽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KBP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돈의 능력과 필요를 잘 알고 그렇기에 유혹되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큰 가치가 있고 이익이 되는지를 순간순간 보여주시며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맞추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KBP에 참여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큰 바다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등대의 빛을 보여주시는 선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KBP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

보게 하는 길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부르심을 기다리는 이슬람권의 준비된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통로로 KBP가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역자들과 앞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에게 왜 KBP에 참여해야하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나눠주세요.



열린문교회의 김용훈목사님께서 KBP 이사들을 위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선교에 대해 나눠주실 때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린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생겨나고 흩어지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중동지역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비즈니스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그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 보내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저희들이 현지 사역자들을 후원함을 통해 그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현지에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며 그분들을 격려하며 인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KBP 이사회 임원단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먼저 서로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이 나타나는 임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주어진 임원의 직분이 부담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여기며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생각과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겸손히 그 길을 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KBP 이사와 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주변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터키 및 무슬림 난민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교회 개척을 위한 필요를 발견하며 채워 갈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300 교회 개척에 대한 목표를 항상 마음에 품고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00 교회를 설립하고 후원하기로 한 것을 1000 교회 100000 성도 만들기로 승화시켜 진정 이 땅 위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안탈리아 기도운동(?)을 기점으로 교회 개척 운동이 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현지인 목회자 훈련과정을 완성하여 말씀과 영성훈련이 합쳐진 이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생과 훈련 봉사자들이 다함께 은혜누리는 거대한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7월에 이사회가 조직되고 현실적으로 비영리 재단 등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IRS에 비영리 재단 등록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하나는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개척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KBP가 후원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KBP여러분 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터키 쿠르디스탄 이집트 2020 킹덤 아웃리치

1. 킹덤아웃리치: 터키, 쿠르디스탄, 이집트

일정: 4월 16일(목) - 25일(토)

사역내용: 복음전파, 교회개척, 난민사역

4-10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터키에 있는 교회가 개척되었거나 개척될 지역에 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항공권은 45일 이전에 구입해야 저렴하기에 각 교회에서 아웃리치팀 구성을 2월 말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터키 비전트립

일정: 4월 13일(월) - 22일(수)

사역내용: 갑바도기아, 수리아 안디옥, 계시록 일곱교회, 이스탄불 방문

위의 비전트립 방문 외에 뷰육아다섬 사역(4월 23일)과 연합기도회(4월 24일)의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가 일정을 원하시는 분은 4월 25(토)일에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국제항공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록문의: 김영진 간사(714.999.8639) | 한국: 임동혁 간사(010.8632.0278)